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文忠誠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金鍾燮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91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3년 11월 23일 화요일

1

우리대학평가시기 96년도로 결정 노력여하에 따라 대학수준 판가름나 현 실정 객관적으로 분석 문제 보완 시켜나가야

우리대학은 94년도부터 정부가 대학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행정·재정지원에 반영하게 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시기를 96년도로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회장 김희집 고려대총장)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9월 대교협에서 국립대의 경우 94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평가받기를 원하는 연도를 결정, 이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96년도에 평가받기로 통보했다.

그동안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시기 등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으나 지난 18일까지 평가대상인 전국 1백51개 4년제 대학 중 1백31개 대학이 평가희망년도를 대교협에 통보함으로써 이제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항목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교협은 내년부터 실시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위해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경영 △재정 △대학원 등 7개 영역에 모두 1백개 항목으로 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정량(正量)지표와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정성(定性)지표가 있어 평가항목 1백개 중 정량지표는 40개, 정성지표는 60개 정도가 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는 각각 5단계로 평가된다.

각 항목별 평가를 종합해 인정대학과 불인정대학으로 나누게 되는데 인정대학 기준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까지 각 대학에서 대교협에 통보한 희망년도를 보면 △94년도에 서울대를 비롯한 10개대 △95년도에 10개대 △96년도에는 우리대학교를 포함해 12개대 △97년도에 25개대 △98년도에 39개대 △99년도에 17개대 등으로 후반부에 평가시기를 신청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교협은 인정을 받기에 부족한 대학 중 대규모 대학은 최소한 1백80억여원, 작은 대학은 60억여원 이상을 집중투자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정제가 정부의 행정·재정지원에 반영되고 아울러 대학의 서열화를 이룰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때 우리학교에서도 평가인정제를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실에서는 "12월말경 평가시기가 확실시되고 대교협에서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기준이 통보되면 이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아직은 평가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시기 및 평가항목과 기준 등이 확정되면 기획실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리학교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89년에 6개 부문에 평가활동을 벌인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전의 평가상의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우리 스스로가 적절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감귤수입개방정책 철회’ 요구 중앙운영위 7명 단식농성에 돌입 ‘학생모임’, 비상학생총회 소집 서명운동

감귤수입개방반대운동이 도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곳곳에는 감귤수입개방정책을 성토하는 대자보들이 나붙고 지난 19일부터는 오영훈총학생회장 등 7명의 중앙운영위원이 감귤수입개방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후 6시부터 가톨릭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지난 19일에는 총학생회 주최로 오후 1시부터 한라대 중앙로 등지에서 ‘미국의 수입개방강요분쇄’ 창년아라결의대회를 갖고 “감귤수입개방 철회를 위한” 방침을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또한 외국산감귤이

수입될 경우 제주경제가 완전 파탄된다는 것 등을 하우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매일 아침 8시~9시까지 학교정문에서 감귤수입개방반대 연좌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모임’(의장 김용환 증식4)에서는 ‘감귤 등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학사일정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상학생총회’소집을 총학생회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간 결과 총 9백12명의 서명을 받아 ‘비상학생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수의 법정강의 시수 줄여야 우리대학 교육부 규정시수보다 1시간 더 많아

최근 대부분의 중앙간지에서는 ‘대학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학을 질타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가운데에는 ‘강의평가제’ 도입과 ‘교수제임용문제’에 관한 것들도 있다.

그런데 대학들이 강의평가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로 없지 않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수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교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 대학들의 실정이다. 많은 대학들이 교수들의 연구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우리대학의 연구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4백여만원의 연구비와 30%에도 채 못미치는 실험기자재의 확보율. 이런 실정에서 연구성과라는 추출물을 만들어 내리니 특별히 용쓰는 재단이 없는 이상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대학의 경우, 이러한 재정적 궁핍은 뒤로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정한 교수의 주당 강의시수(9시간)보다 더 많은 법정강의시수(10시간)를 교육부지침에 맞게 줄여달라는 것이 교수들의 바람이다.

우리대학 전임교수들의 일주일간 평균강의 시간은 11.7시간. 92년 이전까지의 14시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별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백41명의 교수 중 2백20명의 교수가 12~20시간의 강의를 하고, 21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교수가 30명에 이른다는 데서 엿 볼 수 있다.

또한 야간강좌가 있는 학과의 교수는 많게는 주당 25시간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 반면, 일주일에 서너시간만 강의하는 교수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현실은 개개 교수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연구의욕의 좌절만 낳고 있다.

이는 어두운 지하실에 화초를 심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대학교수들이 아무리 훌륭하다한들 연구시설·연구비·연구시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연구의 성과를 내비칠 수 있겠는가. 좀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대학은 연구의욕이 왕성한 시기의 교수들을 단지 후학을 양성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대학 근무정력이 10~20년이 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시기의 이들 교수들이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강의하면서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짐작되는 강의평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수연구업적의 평가에 앞서 교수의 연구여건, 특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 정한 교수들의 주당 법정강의시수(10시간)를 주당 8시간으로 하향조정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교육부에서 정한 주당 9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어떤 교수는 “강의 1시간을 위해 자료를 찾아다니며 몇시간이고 흘려버리는 게 보통인데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고 나면 주말이라고 쉴 여가도 없다”고 하는가 하면, 또다른 교수는 “추가수당이다든지 하는 건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 부족한 교수정원이나 빨리 메

꾸주있으면 한다”며 강의시간에 쫓기다보면 연구할 시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교수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법정강의시수를 초과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초과수당은 시간당 5천원이다. 그렇다고 다른 교수보다 2배의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강의준비도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법정강의시수인 10시간을 초과해서 강의를 자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부족한 교수의 충원에 눈을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교수들이 소신있게 연구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강의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수1인당 학생수(현재 23명)도 대폭 줄여야 한다.

아울러 교수들의 과다한 강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안식년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대학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교수들의 능력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연구공토를 조성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강의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육부에서 지정한대로 법정강의 시수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김정훈기자)

방학중 학사일정

△12월중 9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제4회 생명과학적 이용에 관한 워크샵(방사선이용연구소)

△12월31일 종무식

△1월3일 94년도 시무식

△1월중 제8회 입학전형

△2월8일 제8회 부속중·고등학교 졸업식

△2월17~18일 94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2월21일~24일 94년도 제1학기 재학생등록

△2월중 94학년도 신입생 생활안내

알림

이번 제491호를 끝으로 제2학기 신문을 중단합니다. 다음호 신문은 새해 1월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하르방

외국인 불법취업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지난 11월20일 완구용 원단제조 업체인 일광기업에서 불이 난 공장바닥에서 잡자던 불법취업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기에 질식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한 조선족 교도가 1년6개월 동안 모은 돈 2

백만원중 1백80만원을 ‘불법채류 벌금’으로 물게 되자 이를 비판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노동부에서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1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이들 1만8천여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강제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가 일

하던 사업장에서 잠적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잠적사태는 한번 한국에 들어온 김에 고생되더라도 목돈을 들고 나가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혁·섬유·도금·건설현장 등의 중소기업에서 단순노동

을 하던 그들은 정부의 이러한 강제출국 조치에 따른 잠적 이후 이러한 사업장보다 노동강도가 강하고 저임금인 곳이어도 출국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최악의 노동조

건과 더불어 의·식·주 등 최소한의 인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래서 공장안 바닥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경우 겨우 마련한 목돈을 불법채류 벌금으로 날리게 되자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강제 출국’이라는 정부의 방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출국에 따른 감사가 심해질수록 이들은 점점 더 지하로 잠적할 것이므로 ‘불법채류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의 불법채류 고발 여부에

따라 생사여탈권마저 사업주의 손에 쥐어 주게되어 그야말로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미국 사이에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불법채류 노동자들의 실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실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필리핀인·네팔인·중국교포 등 불법채류 외

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안고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 문제는 생존권이 걸린 이상 강제출국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로 그 기반이 다져진 APEC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池)

1994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 학	계 열	모집 학과 및 입학정원
인 문 대 학	인 문 계	국어국문학과(40), 영어영문학과(40), 독어독문학과(40), 일어일본학과(40), 중어중문학과(30), 사회학과(40), 사회학과(40)
	예·체능계	음악학과(40), 미술학과(40)
법 정 대 학	인 문 계	법학과(50), 행정학과(50)
	예·체능계	아간강좌: 법학과(40), 행정학과(40)
경 상 대 학	인 문 계	경영학과(50), 관광경영학과(40), 회계학과(50), 무역학과(40), 경제학과(40), 관광개발학과(30)
	예·체능계	아간강좌: 경영학과(50), 회계학과(50)
사 법 대 학	인 문 계	국어교육과(20), 영어교육과(20), 사회교육과(25), 상업교육과(15), 국민윤리교육과(15)
	예·체능계	수학교육과(20), 과학교육과(25)
농 과 대 학	자 연 계	농학과(40), 원예학과(40), 축산학과(40), 농화학과(40), 수의학과(40)
	예·체능계	농업경제학과(40)
해 양 과 학 대 학	자 연 계	어업학과(40), 증식학과(40), 해양학과(40), 해양환경공학과(40)
	예·체능계	해양토목공학과(40)
자 연 과 학 대 학	자 연 계	물리학과(40), 생물학과(40), 화학학과(40), 식품영양학과(40), 수학과(40), 전산통계학과(30), 가정관리학과(30)
	예·체능계	체육학과(40)
공 과 대 학	자 연 계	식품공학과(40), 기계공학과(40), 통신공학과(40), 에너지공학과(40), 정보공학과(40), 전자공학과(40), 전기공학과(40), 화학공학과(40), 건축공학과(40)
	예·체능계	산업디자인학과(40)
총 계		57개학과 (2,160명)

*전공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음악학과: 성악10명, 피아노10명, 작곡4명, 관악(트럼펫1명, 트럼본1명, 튜바1명, 플루트1명, 바순1명, 클라리넷1명), 현악(바이올린5명, 비올라2명, 첼로2명, 콘트라베이스1명) ●미술학과: 한국화13명, 서양화15명, 조소12명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12명, 지리교육13명 ●과학교육과: 물리교육12명, 생물교육13명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10명, 공업디자인10명, 산업공예20명

2. 지원자격

가.고등학교 졸업자(1993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지원할 수 없다.
나.사범대학 지원자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최종 출신학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의 사범대학 입학추천을 받은 자.

3. 지원방법

가.지원자는 제2지망까지 복수지망 할 수 있으며, 제2지망은 제1지망과 동일한 계열내의 학과에 지망하여야 함.
나.사범대학 이외의 대학에 제1지망한 자는 사범대학 각 학과에 제2지망 할 수 없으며 예·체능계 학과를 지망하는 자는 제2지망 할 수 없음.
다.산업대 근무자로서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아간강좌 학과에 한하여 제1, 2지망 할 수 있음.

4. 전형방법

가. 일반전형

1) 일반학과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사범대학 제외)

구 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교내신성적	계	비 고
비 율	60%	40%	100%	
점 수	300점	200점	500점	

2) 예·체능계열학과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음악, 미술, 체육(체육특기자), 산업디자인학과)

구 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계
비 율	30%	40%	30%	100%
점 수	150점	200점	150점	500점

3) 사범대학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

구 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교내신성적	면접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계
비 율	50%	40%	5%	5%	100%
점 수	250점	200점	25점	25점	500점

나. 특별전형

1) 산업대 근무자 특별전형=전형방법은 일반학과와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특별전형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함.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전형방법은 체육학과와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실기고사는 별도 기준에 의함)으로 하며, 특별전형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정원을 선발함.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1993년 12월 17일(금요일)~12월 24일(금요일) 09:00~17:00
본대학교 정문 수취실(전화 54-2081), 농협중앙회 북제주군지부(전화 22-4141), 농협중앙회 남문지점(전화 56-0731), 농협중앙회 서문지점(전화 718-4711), 농협중앙회 부산지점(전화 241-4194), 농협중앙회 인천지점(전화 862-0021), 농협중앙회 대구지점(전화 23-9851~8), 농협중앙회 춘천지점(전화 54-4491~5), 농협중앙회 대전지점(전화 253-8151), 농협중앙회 청원군지부(전화 53-5101~7),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전화 252-5161~6), 농협중앙회 광주지점(전화 527-6501), 농협중앙회 남제주군지부(전화 62-3111~7)

나. 원서접수: 1993년 12월21일(화요일)~12월 24일(금요일) 09:00~17:00 본대학교 체육관

6. 면접고사일: 1994년 1월 7일(금요일)

7. 합격자발표: 1994년 1월 20일 이전 본대학교 종합운동장
*기타지세한 사항은 본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하고 교무처 교무과(전화 54-2011~2)로 문의바람

제 주 대 학 교

社説

기금조성 방안제시를

이제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얼마 없으면 기말 고사를 끝으로 해서 대학 캠퍼스는 긴 동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신문도 올해의 종간호라고 한다.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면 즐기 차게 걸어온 1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마련이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뇌리에 남아 스스로를 가늠해 보게 된다. 이런 자세는 개인은 물론 공인의 입장에서든 필요한 태도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들은 지난 9월21일자 본란을 통하여 '발전기금 50억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무 위에 올라놓고 흔들려서 심사가 아니라 전임자가 책임 기간 동안 8여여원을 조성했기에 총장 혼자 힘으로 베푼 사업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까지 없으니 진실된 공약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풍문을 고사하고 학우회의 자료 어디에서도 그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아쉽고 답답할 뿐이다.

혹자는 취임식이 있는 지 100일도 안 되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결코 빠르지가 않다. 총장 후보로 나설 것을 마음 먹고 내세울 공약 사항으로 자리하기까지 심사숙고하고 있었고, 총장 후보 1순위로 확정된 때로 기술러 올라간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취임식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었든 게 아니라면 정말이지 '진실된 공약'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오늘부터 올라가면 50억 조성계획이 무르익은 지가 에누리될 해도 100일이 훨씬 넘었다. 좀 부풀려진 한 학기가 다 되어 가고 있다. 8분의1이 지난 셈이다. 전임자가 조성한 기금과 견주어 본다면 5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4년이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도 버거운 역수임에 틀림없다. 동분서주해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전제대인의 동참을 호소해야만 한다. 대학발전을 위하여 전제대인이 하나가 되어 일어설 때 주위에서는 박수 갈채를 보낼 것이며,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도 할 것이다. 뛰는데 뒤에서 잡아당길 사람은 없다. 발버둥치는데 위에서 누를 사람 또한 없다. 발전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된 공약'임을 보여주는 길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다. 지지해준 조종한 다수도 호소해 할 것이다. 나아가 전제대인도 기뻐할 것이다. 모두가 뜨거운 성원을 보낼 것이다.

발전기금 50억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밝은 미래의 제주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우리 몸의 피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몸이 마비되거나 병이 든다. 사회도 그렇지만 대학도 내부의 피순환과도 같은 대화의 흐름이 매마르면, 생명력을 잃어 버린다. 생명이 없는 죽은 대학은 우리의 삶을 상습시키는,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 수 없다. 대학은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신선하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관에 박힌듯한 대화가 아니라, 생각과 생각이 부딪쳐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 내고,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화가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 대화야말로 서로를 상습시키는 발전이다. 학문연구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분과학문들 사이의 대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전 구성원들 사이의 참다운 대화는 편견과 독단을 억제하여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낳게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 〈5〉

대학정신을 살리자

하고, 넓은 사유의 영역을 열어 줌으로써 새로운 지식창조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대학이 스스로 이상향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사회도 삶도 이상향이 될 수 없다. 타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대화야말로 이상적인 대학사회를 만든다. 생생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은 새로워지고, 따라서 사회도 삶도 새로워진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에 대한 열정으로 채우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닌, 인간과 삶을 위한 참다운 지식이 창출된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대학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학평가제를 실시하는데, 대학의 내적 생명력, 즉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과 교육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덧붙여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몇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대학은 어느 대학보다도 이상적인 대학사회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훌륭한 대학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대학분위기의 쇄신이다. 수도원처럼은 안되더라도, 대학은 우선 교수와 정숙해야 된다. 자동차가 질주하고,

마이크소리가 캠퍼스 전체에 울리고, 어디에서나 운동과 놀이가 행해지고, 시설물들이 곳곳에서 파손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캠퍼스의 분위기도 바꾸어야 한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대학전체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고, 그 속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사각형 건물들은 담쟁이로 뒤덮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대학처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대학도 많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꾸는 노력을 한다면 빼어난 모습의 캠퍼스를 자랑할 수 있겠다.

두번째는 전문도서관의 설치

가 이뤄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먼저 도서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장서와 각종 자료가 조금도 손색이 없어야 되지만, 음향도서실, 비디오·오디오자료실, 집단학습방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문과학 도서관, 사회과학 도서관, 자연과학 도서관의 세개의 전문도서관을 신설하고 중앙도서관이 이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는 대학과 연구소가 기능의 분화를 자각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대학내의 연구소건 사회의

연구소건 연구소의 기능이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있다면, 대학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와 토대로서의 현실해석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치 철학과 경험과학의 관계처럼, 대학과 연구소가 상호보완적 자세를 가질 때, 대학전체의 연구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된 삶이 훌륭한 삶이라면, 진실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대화적 이성애에 의해 탐구된 방법이 훌륭한 지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시설과 환경, 관리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살아 있지 않으면, 대학은 창조적일 수 없다. 창조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살아 있는 관계 속에서 잉태된다.

김종태(독문학과부교수)



I 교수동정

▲고남욱(경제학과)교수=지난 20일 제주상공회의소부설 '제주지역경제연구센터' 초대위원장에 선출됨.

▲박규은(과학교육과)교수, 김항원(사회교육과)교수, 서두옥(어업학과)교수=지난 11월20일 천주교 제주교구청 제주 카톨릭교수회 창립총회에서 각각 회장, 부회장, 감사로 파선.

▲오윤근(해양환경공학과)부교수, 허복(〃)부교수, 허철구(〃)조교수, 김상규(〃)조교수, 이기호(〃)조교수=지난 11월12-13일 양일간 대한환경공학회·한국대기보전학회·한국수질보전학회 공동주최로 대덕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 93년 추계 환경종합학술회에 참석.

II 공연·전시

‘포로교환’ 공연
연희연구회 우리네
사범대학 연희연구회 우리네(회장 한상현 과교2)에서는 ‘포로교환’을 오는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한다. 휴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고민·감동하는 포로들을 통해 남과 북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연극의 기획은 김명오(경영 4)학우가, 연출은 강순선(국교 2)·김소형(국교 1)학우가 각각 맡았다.

이 연극은 오는 27일(오후 4시·6시30분)·28일(오후5시)은 자유무대 소극장에서, 29일(오후5시)은 법정대 중앙당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한울회 서예전 개최
노인대상 23일까지

한울회(회장 오현우 일예)의 서예전이 지난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노인대학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미현(수교 2)학우의 ‘臨石鼓文’ 등 회원작품 20점이 선보였다.

미술과 ‘디딤전’ 개최
백두관에서 26일까지

미술학과 1학년(학내대표 강남술)주최로 ‘디딤전’이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백두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윤은경학우의 ‘조와’를 비롯해 서양

6일부터 기말고사 실시

미응시자 교무과로 사유서 제출해야

93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이 오는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기간 중 학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부정행위자는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해 조치된다.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유서를 첨부한 시험연기원을 시험실시 직전까지 단과대학 교무과로 제출해야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I 발간소식

학술세미나 논총발간

교육대학원
『학술세미나 논총』이 지난 10월30일 교육대학원(원장 양순필 국교 교수)에서 간행됐

29일 졸업위장 선출

24일 후보등록마감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최관훈 기계공4)에서는 오는 11월29일 차기 졸업위 위원을 선출한다.

이 책은 지난 84년 10월30일에 열린 제10회부터 93년 9월7일 열린 제10회까지의 교육대학원 주체 학술세미나 발표 내용을 모은 것으로 △제주도 중등교육의 질적향상 방안 △중등교육 국어·영어교육의 방향과 과제 △중등교육 교과의 방향과 과제-국문문리·수학교육 분야 △중등교육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물리·생물교육분야 △중등교육 예·체능교육의 방향과 과제-체육·미술교육분야 △교육자치의 이상과 현실,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방향-교육행정·사회교육분야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학교경영조직의 개편방향 △중등교육 국어·영어교육의 개선방안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새 방향 △21세기를 향한 중등학교 수학교육의 방향 등이 실려 있다.

‘탐라문화연구’ 창간

탐라문화연구소(소장 현용준 국교 교수)에서는 지난 11월1일 격월간 소식지 『탐라문화연구』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탐라문화연구소 소식을 비롯해 △지난 10월15일에 개최됐던 학술심포지엄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의 발표 요지 △삼성신화 관계 논저 목록 △탐라문화원 해제 △신간대 도서 소개 △학술모임 안내 △수종증서 안내 △연구소 발간 도서 안내 등이 실려 있다.

29일 졸업위장 선출

24일 후보등록마감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최관훈 기계공4)에서는 오는 11월29일 차기 졸업위 위원을 선출한다.

파손된 의자들 1년간 방치

예산타령 앞서 무엇이 중요한지 직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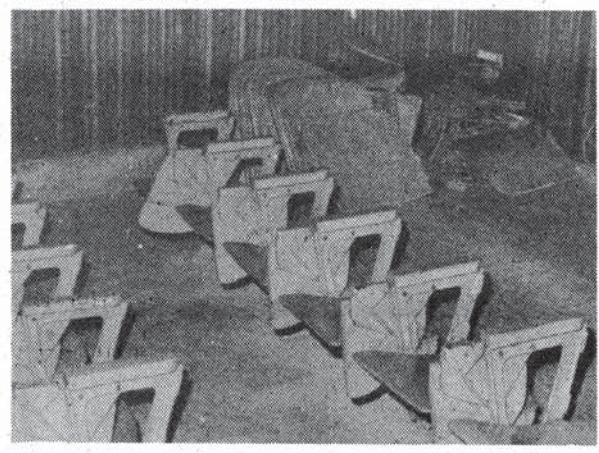
사범대학 세미나실 좌석들 가운데 5분의1가량이 파손돼 있으나 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1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다.

사범대학 세미나실은 강의·특강·학회모임 뿐만아니라 우리대학 부설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각종 학술세미나가 자주 열리고 있어 파손된 의자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사범대학 서무과에서는 좌

석을 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좌석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생선종단원 상태라 수리를 하려면 세미나실 전체좌석을 교체해야하는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이번 겨울방학에는 꼭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임시방편으로 앞쪽의 파손된 좌석들을 수리하기 위해 뒷쪽 좌석들의 일부를 뜯어내 사용하고 있는 좌석의 모습.



도서구입 신청접수

중앙도서관, 12월10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 고유봉 해양학과교수)에서는 자료확보를 위해 94년도 전반기에 구입할 도서를 각 학과별로 오는 12월10일까지 추천받고 있다.

추천자료의 범위는 △교과과

정에 따른 교수, 학습용 도서(교수추천도서와 학생이 학과로 신청하는 도서 포함) △교수연구용 자료(학술지등 연속성 간행물 제외)등이다.

有大漫評



제주도 독립만이 살길이다(?)

21世紀, 통신혁명 新世紀—

無限의 젊음으로
無限의 미래를...제1회 전국 대학(원)생
무선통신산업(기술, 경영)논문 현상공모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통신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선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전국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학술논문을 모집합니다.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주축이 될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보다 질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응모요강

1. 참가대상: 전국 대학(전문대 이상)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2. 응모기간: '94. 1. 15까지
3. 응모주제: 2개 분야(1개 분야를 택함)
 - 무선통신 관련 정책, 경영, 마케팅 등 일반분야
 - 정책과제: 장기/단기전력, 당면과제 및 대책, 마케팅전략, 육성 전략 등 일반주제
 - 무선통신관련 기술분야
 - 이동통신 위성통신, 개인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주제
4. 응모요령
 - 상기 응모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분야를 임의로 선택 가능
 - A4용지 20매 이내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매주제한 없음, 원고봉투나 학회용이 표시된 리포트용 봉투는 사용 불가)
5. 시상내역
 - 1인 이상

- 단체대상
 - 임시(이상)의 논문이다 각각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대학(학과)에 연구장려금 지급
 - 점수부과 내역
- 최우수 수 1명, 우수 수 2명, 가 작 3명, 입 선 1명
- 17점 이상 13~16점 10~12점 7~9점
-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무선통신 관련 정책, 경영, 마케팅 등 일반분야
 - 1차 심사: 논문심사로 30편 선정
 - 2차 심사: 논문심사로 10편 선정
 - 3차 심사: 논문발표대회로 최우수 우수, 가작을 심사
- 7. 논문발표대회: 일자: 1994. 1. 31 장소: 별도안내
- 8. 입상자발표: 1차 발표: 1994. 1. 25 ●최종 발표: 1994. 2. 3
- 9. 제출처: 서울 중구로 사원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
- 후 110-110 신세기 이동통신 홍보팀
- 우편 및 직접접수 가능
- 10. 기타
 - 응모작품은 창작물로서 미 발표 작품이어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신세기이동통신과 후원기관에서 간행하는 인쇄물 등에 실용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세기이동통신 홍보팀으로 문의
 - TEL. 399-6091, 6048, 6047

제철로부터 통신보급으로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주최: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후원: 중앙일보사, 한국경영학회, 한국통신학회

위치: 중앙여중 서사리 입구 건너편 ☎52-1729~30, 22-2709 FAX 58-1151

시평-현길언 저『배반의 끝』

사회와 개인의 역학

소설집 『배반의 끝』에서 작가가 제시한 사회는 갈등이 內在하는 사회이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킨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행동의 저변에 숨어서 動因으로 작용하는 것은 신념이다.

조직론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없는 이야기가 될 터이지만 문학의 해석학적 시각으로 보면 사회의 관계를 그대로 수용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개인이 사회와 대등한 힘을 구사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소설집 『배반의 끝』에 수록된 일곱편의 작품들은 거의가 사회와 개인의 力學關係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배반의 끝』, 『司祭와 祭物』, 『棲息地』에는 그러한 점이 강하다.

『배반의 끝』에 나타나는 사회는



전교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이다. 장학사 남종석과 해직교사 함민웅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이지만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사회와 개인을 각각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가로 놓여 있어서 그것이 또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작가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했는지 한 방향과는 다르게 이 작품은, 전교조를 제도화하기는 고사하고 용납하는 것까지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와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개인의 갈등을 그린 내용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읽혀질 때

『배반』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배반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배반이 되고 따라서 『배반의 끝』은 축적적인 의미를 넘어서게 된다.

『司祭와 祭物』에 나타나는 사회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 사회이다. 이 경우의 허위와 기만은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분신태가 벌어지고 대학생들이 악덕 기업주의 처단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처세 심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 점은 아버지 순웅이 아들 대권에게 “술취한 사람”처럼 말했던 내용과 대권의 여자친구인 경미가 대권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두 사람의 말에서 공통적인 것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司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직한 의도에 따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祭物로 바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司祭는 없고 “민중을 현혹하는 마법사거나 주술사”들만 있는 셈이다. 그러한 司祭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祭物로 바쳐진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면 개인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작품은

그러한 점에서도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보여주는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棲息地』는 이념적인 문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찾아가 45년만에 만나게 된 아들을 중심으로 재일교포 1세들의 생활에 따르는,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재일교포 1세들은 일본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산다 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서식지 이상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말을 지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작품 앞의 두 작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 세 작품에 나타난, 사회와 개인의 갈등은 갈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충돌하고 대립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승리는 항상 사회쪽에 돌아가게 되지만 패배는 항상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사회발전의 잠재적 요인이라 할 만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의 패배가 축적되었을 때에 비로소 형성되고 유지되며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길언은 그동안 제주도의 4·3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해 왔는데 『배반의 끝』은 그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또다른 국면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병택 (국어국문학과 교수)

과.학.이.야.기



트랜지스터 발명은 우연인가

“트랜지스터 발명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잘 계획된 연구의 성과입니까?” 이는 트랜지스터 발명의 주역인 윌리엄 쇼클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는 완전히 우연적 발견으로 태어났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생활의 구성구석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전자공학이라는 현대기술이 트랜지스터로부터 나온 커다란 흐름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트랜지스터 탄생이 우연인지 아닌지 그 역사적드라마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1930년대 중반 미국의 벨 연구소에 전자관 부장으로 있던 마빈 퀸리는 어느날 쇼클리에게 10년, 20년후의 미국사회를 위해 벨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전화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진공관을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증폭장치를 만들어 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쇼클리는 그 일을 그의 사명으로 삼고 오랫동안 여러가지 가능성을 머리에 그려면서 실험하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반도체 박막을 이용한 중요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계획하고 예측된 실험이었지만 예측은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실패 중에 문제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실험의 실패 뒤에 연구의 전기가 찾아옵니다. 실험의 실패에 대해 의견을 듣는 회의에서 쇼클리는 존버딘으로부터 반도체 결정의 표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깊게하는 연구를 다시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진행시킵니다. 여기서 버딘은 ‘표면상태’에 관한 가설을 제창하고, 윌터 브래튼이 이 가설의 검증실험을 시작합니다. 브

래튼의 실험은 주로 ‘순작업’에 의존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브래튼은 표면상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실험결과를 얻지만 버딘과 쇼클리에 의해 실험에 있어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이것은 버딘의 표면상태 모델을 검증하는 실험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더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1947년 12월 23일, 벨 연구소 실험실 안에서 브래튼은 그 실험중에 증폭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서두의 질문에 대한 쇼클리의 답변을 소개합시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매우 잘 운영된 매니지먼트로 행해진 연구속에서 우연히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브래튼의 실수가 없었더라면 그 증폭현상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브래튼의 믿음직스러운 실험의 축적이 있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쇼클리에게 집념이 모자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퀸리가 쇼클리의 집념에 불을 붙일 찬스가 없었더라면, 역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진공관으로 라디오를 만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실패’인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실패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도양희 전자공학과 조교수

연극평-‘애니깽’을 보고

“이 지상에 살어리랏다”

스산하게 멀리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와 유적을 찾아 떠나는 그런 날들로 점철되어진 날들에 또 하나의 의문만을 제기한 채,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의 원시적인 근육의 몸짓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위 말하는 ‘이율배반성’을 띠고 있는 형태일 뿐이다. 그 형태에서 비극을 희극으로 혹은 희극을 비극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뿐이다. 세계의 眞과 관계없는...

—각설
애니깽 팸플렛 서문은 이렇다. “이 연극으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노예로 끌려가 애니깽 농장에 묻힌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과연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을까?)

애니깽은 이런 대사로 끝난다. “그대들이 떠나있는 동안 이 나라는 일본사람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고함) 거짓말입니다! 임금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름) 어떻게... 저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짐승이었습니다. 그저 짐승같이

뛰어왔습니다.

(목메임) 가련한 백성들아, 살아왔으니 그대들이 이긴것이다... 이 버림받은 백성들아...

(비명) 임금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임금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처음부터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너무나 뻔한 줄거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관객들에게 요구한 것일까, 이 연극은?

단순하게 이 글을 ‘시대의 희생양’ 또는 ‘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규정 속에는 현재가 없다.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이 연극은 현재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눈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거의 제초명을 부정하는 결과로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서사극을 제작팀들이 표출하려는 민족의 ‘恨’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그 의문은 연극을 지켜보는 동안 계속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애니깽을 자르던 것은 비단 한 국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고, 한국사람만이 애니깽농장에서 견달수 없어 탈출하려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단지 고종황제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만이 한국사람적인 것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恨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의 혼란만을 가



◇한우와 민우는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낮놓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자 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다 주고 본질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기에 더욱 뚜렷한 주제 의식의 해명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한민간가 하는 질문을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연극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도도한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설정한 까닭과 계속적인 질문의 내면는 무엇인가? ‘애니깽’의 구성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고종황제를 둘러싼 상황과 애니깽 농장에서 일한 백성들의 상황으로, 극의 전개는 임금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정발 짐승같이 맹목적인 복수에 의해 달려오나 그들이 믿는 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비명과 그 탈출한 자

들의 피상적인 승리로 끝나나 이 연극의 본질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엄연한 비극적 상황을 산출한다.

결말을 암시하는 욕망의 해결 즉 그들이 생각해 낸 최종적인 해결방안은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권위, 선전, 강요)에 걸려 그것에 따라 움직였고 그들은 한국을 떠날 때와 같은 세속적 속성에서 다시 한번 고종이라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리라 믿는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줄(탈출-고통의 끝)이라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줄을 잡고 죽어가면서도 그 줄을 믿었는데 그 줄은 이미 씹어파진 낡은 동아줄이었기에 그 끝은 인과론적으로 끝남을 알 수 있다.

어찌보면 냉혹한 질서에 순리대로 된 것 같지만, 30년과 감정의 끈적끈적함의 분위기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한우와 민우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또한 우리

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한우와 민우는 ‘패배자’인가 아니면 ‘승자’인가? 이 연극은 오히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한우와 민우는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우리의 자를 갖다 댈때면 너무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못된다. 그들은 ‘삶의 고통’을 통해서 고종(해결자)을 생각해 냈는데 계속적인 상황관단 오류를 범하고 있으 나, 그들은 세계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인간 모습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사실을 전하려는 그들의 의지 또한 강조되고 있기에 어떠한 결단도 내릴 수 없다. 단지 그들을 승자와 패자로 만드는 것을 관객에게 이 연극은 돌리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수없이 많은 벽을 힘들게, 또는 그 넘어가는 목적에 약간의 즐거움을 넘어서 그 결과가 분홍빛의 이련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절벽 속으로 떨어지는 예를 종종 본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계질서와 사람들은 영원하게 서 있을 것같은 느낌을, 이 연극에서 한 장면은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그 느낌의 울동은, 인간 근육의 떨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 근육이 움직이려면 수없이 많은 신경이 작용을 하여 대뇌의 물질적인 부분을 움직여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움직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

한우와 민우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을 그들의 갈등은 아직도 현실에 남아있기에 그 과거의 문제를 청

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들을 승자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이고 패배자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동정이 간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질서는 여전히 견제하고 그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척도이기에 그 가치척도를 인간이 구성하고서 그 ‘자’가 바로 인간을 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발걸음 하나하나 놓는다는 것이 그냥 무의식처럼 걸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의 전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불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도전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한우와 민우와 같은 인간 부류의 결정을,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무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낮놓고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일 것이다.

고지연 국어교육과 3

社 告

제41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모집분야: 취재·사진·문화기자

△제출할 서류: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13일까지

법정대 중강당 2층 본사편집국

△전형: 12월13일(월) 오후 5시 본사편집국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사항: 제대신문사 ☎54-2278~9

제대신문사

사생 모집 공고

94학년도 백목사 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제학생 165명(각학년 55명기준)
2. 입사기간: 1994학년도 제 1, 2학기(1년간)
3. 입사지역: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 제14조 및 15조에 의함
4. 신청서류: ①소정원서 ②추천서 ③성적증명서 ④주민등록초본 ⑤건강진단서 ⑥무재산 또는 국민자 증명서 ⑦반명함판 사진 5매 ⑧학부모 동의서
5.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3. 11. 22(월) ~27(토) (6일간) (기숙사 상담실)
6.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1993. 11. 29(월) 09:00 ~12. 2 (목) 17:00(사강당실)
7. 선발자 발표일: 1994. 1. 19(수) 13:00 (기숙사 본관 계시관)
8. 선발방법: 학생기숙사 사생선발기준에 의거 서류전형, 면접을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9. 선발기준 요목: 성적, 통학거리, 신체조건, 가정환경, 품행 등
10. 입사 결정의 취소 ①미등록자 ②허위서류 제출자 ③전염성 질환자 ④기타 부정입사자
11. 퇴사: 기숙사 규정 및 사생수칙 위반자
12. 기타: 기숙사비 연간 180,000(식비제외)이며, 기타 의문사항은 학생기숙사(54-2255)로 문의바람.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 사강장

공 고

’93년도 우리 대학교 직장 예비군 일반·보충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1993. 12. 13~15. (3일)

2. 교육장소

가. 정신교육: 우리 대학교 법정대학 중강당

나. 전술훈련: 해병 92대대 예비군 훈련장

다. 체 육: 우리 대학교 운동장(우천시 체육관)

3. 교육 대상자

가. 93년도 일반(기본)교육 연기자 및 불참자

나. 93년도 2학기 신규 편성자(복학생, 재입학생, 신규임용 교직원)

다. 지역동대(중대)에 편성당시 91. 92년도 교육 불참자

4. 교육일정

일 자	교 육 과 목	시 간	장 소
1993. 12. 13.	정신교육	8	법정대학 중강당
1993. 12. 14.	체육, 전술(사격)	2, 6	운동장, 해병92대대
1993. 12. 15.	보충(정신교육)	2	법정대학 중강당

5. 유의사항

가. 93년도 졸업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졸업후 지역 및 직장부대 편성후 본 교육불참으로 교육시간 가산)

나. 지역동대(동대)에서 보충교육 대상으로 통보된 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불참후 고발 및 교육가산)

6. 기타

가. 교육당일 07:45까지 해당 교육장에 집결할 것.

나. 중식은 개인별 지참할 것.

다. 교부된 소집 통지서를 지참할 것.

라. 복장은 사복으로 착용하고 교육장 집결후 예비군복으로 착용할 것.

(복장위반시 벌점처리, 교육시간 가산)

마. 신분증을 지참할 것. (학생증, 주민등록증, 기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연대(구내 2288, 2289)로 문의 하기바람.

1993. 11.

제주대학교 예비군연대

■ 중학입후보자 지상 정책토론

'협의모임' 토대로 '대발협' 건설

강의평가제 실시·강의안내서 사전 배부 꼭 실현

학내 그린벨트해제·발전기금조성운동에도 주체될 터

△'넉넉한 삶, 청년의 약속 통일 다짐 총학생회'라는 기치 의미는?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함축한 말로써 학생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한층 더 발전해 학생회와 학우가 하나됨 속에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다짐하고자 하는 뜻을 포함한 말이다.

△93년 총학생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학생회사업을 돌이켜 보면 그 구호에 어울리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사업내용이 미미했던 것 같다. 통일다짐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려 하는지?

—올해 총학생회도 '학원 대청소', '협의모임건설', '현수막·게시판 정비'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 변화되고 세련된 삶의 방식을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우들과의 결속에서 산적이 통하는 간부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간부들의 모습을 정착해 내야 한다.

또한, 관련집행원을 중심으로 과·단대-총학으로 이어지는 '통신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상·하반기 간부학교에서는 과단위 간부가 지 포괄하여 역량을 갖춘 간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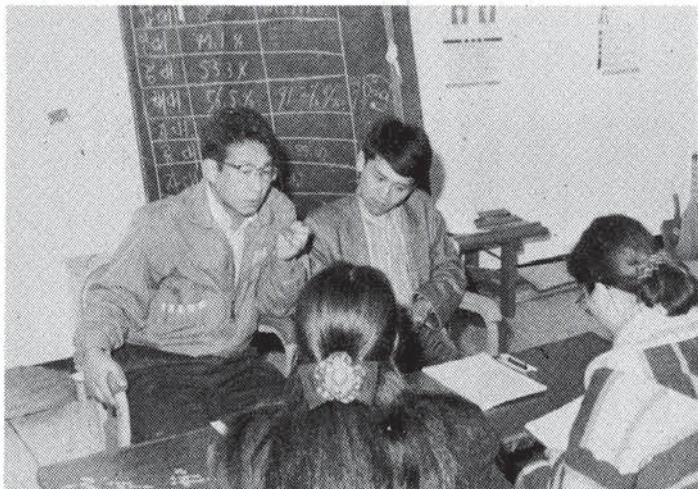
—모든 것을 다 잘 해내고 싶은 게 지금의 욕심이다. 그 중에서 굳이 꼽는다면 학우들과 부딪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사업(축제, 아라체전, 등)을 내실있게 꾸려나가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또한, 요즘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학생회의 일관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

△도서관문제에 관한 공약은 때때로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자치위를 구성해 도서관 개혁운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어떠한 조직을 만들기에 앞서 학우들의 주인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들 자신은 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겨울방학 동안에 도서관 자치위원회 주체를 꾸리고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현실적인 문



오는 25일의 총학선거는 우리대학교 사상 처음 치러지는 신입(찬·반)투표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 총예비역협의회 사무실에 선거본부를 꾸린 차기 총학생회장·부후보자를 지난 11월21일 만나 그들의 내건 공약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우들이 신입투표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여운이 씀)

제들을 파악한후 등록금 투쟁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회의 주인은 학우 한사람 한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작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틈은 점점 더 벌어져가고 학생회의 문턱은 높아진다는 여론이다.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중적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학생회 사업공개, 예산공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업공개부분은 올해도 노력했으나 그것이 대중화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학우들에게 중앙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을 즉시 알릴으로써 학생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공개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학생회비로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회 감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참다운 대학문화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의 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

—개강·종강파티, 모교지의 문제점들을 문화부산한 생활문화주체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과에서 행해지는 일상사업들을 공동적·집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단순히 먹고, 즐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사업을 행하고 평가의 자리를 통해 그런 모임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최하는 입장에서 좀더 다양한 내용들을 생산해내고 우리학교

에 맞는 행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축제기간 단축과 행사통합문제에 대해.

—대학내의 축제는 교수·교직원·학생이 하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름대로 연관성있는 단대끼리의 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중앙운영위들과의 대화속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

△대학발전협의회에 관한 공약이 때때로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먼저, 협의모임의 안착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내용이 모자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모임내용을 풍부히 하고 그 과정속에서 협의모임을 정례화, 지속화시켜 나간다면 '대발협'건설은 금방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협의모임속에서 취업, 학내 그린벨트해제, 발전기금모금 등의 내용들을 소화해내고, 단대차원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간담회를 단순한 간담회가 아닌 지속적인 협의모임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모임속에서 논의·결정된 사업들을 학칙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발협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학내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학내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학내 건물들의 비효율적 신설과 교통·주차 문제 등이 심각하다. 실로 그린벨트해제는 시

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교수, 교직원, 학생 더 나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감으로써 국회청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또, 발전기금모금운동에 대해서는 총장은 총장대로, 동문은 동문대로의 역할이 있듯 싶다. 이런 맥락에서 총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먼저 학우들에게 이 운동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금마련을 위한 노래공연' 등을 통해 학우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발전기금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의안내서 배부, 강의평가제의 시행 문제는 올해 총학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성과가 없었다. 통일다짐 총학에서도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 실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전공강의의 경우는 전공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과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총학에서는 교양·일반선택과목의 강의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학우들도 대중학점이나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강의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강의안내서 마련은 꼭 이뤄져야 한다.

강의평가제 실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학생이 교수를 평가할 수 있는가'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강의평가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강의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다. 교수·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종강 1, 2시간 전에 족지 등을 이용,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한 건의를 하는 등의 초보적인 강의평가제나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총학생회의 사업연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현재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처럼 총체적으로 하루에 그쳐버리는 형식적인 인수인계가 아니라 부서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은 감금수입개방반대투쟁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학생회와 학우들이 분리된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에게 다가서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원사회의 정신과 '제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나가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현안문제로 요즘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감금수입개방반대투쟁은 곧 우리의 삶에 대한 투쟁이다. 청년아라가 앞장서 주체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담·정리=권옥수기자)

자치기구 입후보자 지상유세 및 당선소감



대의원회 정 고탁현 부 백진호

1. 슬로건: "하나됨으로 더욱 풍부한 삶을 개척하는 한길 대의원회"

2. 정책
1) 학생회 발전의 일보전전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①대의원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②총학생회와의 연계속에서 학내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전개하겠습니다. ③학내대표 1년임기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정 강 훈 부 송종익

어김없이 추위는 우리 청년 아라인의 왕성한 활동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 떨려 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분노를 치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감금수입개방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생명이 달려 있기에 어머니·아버지가 투쟁의 대열에 나서고 있고, 우리대학교 중앙운영위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금수입개방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



야간강좌부 정 이인석 부 강태유

우리 몸을 감싸는 옷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우여러분이 그러한 옷과 같은 마음이라 믿으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0여대의 과수꾼이 되기 위해 조금은 설레이는 가슴과 벅차오는 열정을 안고 이번 제 16대 야간강좌부 학생회에 입후보한 정·이인석, 부·강태유입니다.

습니다.
2)우리의 삶의 터전 자주학원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①손자손광장을 통해 수렴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②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식당운영의 질개선, 소비조합의 학생중심적 운영 등 학내복지시설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상임위원회의 안착화와 내실 있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3. 출사표
"작으나마 넉넉한 사람을 담아 민족제대의 풍부한 삶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8천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삶의 공동체라는 제주대학교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론 순풍에 돛달고 때로는 거센 파도를 뚫고서 풍랑속에서 방황했던 학내대표 1년임기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에 청년 아라인의 힘찬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선소감의 서두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우리의 손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이기에 감금수입개방 저지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19일에 실시된 94년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당선된 강훈, 송종익입니다.

감금수입개방 문제만큼이나 동아리, 동아리연합회에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동아리연합회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 가기를 꺼리는 동아리인,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의 위치조차 모르는 동아리인

이 많다는 게 선거기간에 동아리인 만나면서 저희가 느낀 문제의식입니다. 둘째로 동아리의 위상 열에 나치고 있고, 우리대학교 중앙운영위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금수입개방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

저희는 아라인들이 항상 부족한을 느끼는 복지향상을 위해 저희들의 온몸을 바쳐 싸워 나감으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스레 긁어 드려드리겠습니다.

보리가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자라나듯 저희 또한 강인한 정신과 뜻밖의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뜻없이 헤쳐나가 우뚝서겠습니다.

I. 우뚝·상승 아라학생회는 학우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각 과학우들간의 연대강화
② 아라학우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 마련

II. 실질적으로 아라학우들에 보탬이 되는 복지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① 경영학과, 회계학과 과방 분리추진
② 식당, 매점 이용시간 연

으로 여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천아라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함께 힘을 모아만 보다 풍부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모두가 개별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자주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즉, 공동적인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갖고있던 지향점을 왜 우리는 여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자! 이제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함께 공동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찬 첫발을 내딛읍시다.

리생활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휴식처나 사람 한명 더 있는 데 그치는 동아리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생활속에서 민족·자주문화 건설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분과 강화와 운영위 강화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두 문제점에 대해 어쩌면 분과 강화와 운영위 강화 만큼 좋은 대안은 없을 거라 봅니다. 진정한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가 일심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과 강화와 운영위 강화에 4천5백동아리인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동아리, 동아리연합회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저희들의 공약이요, 정책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 ③ 동계 난방 추진 ④ 경성대 강의실 방충망 설치 ⑤ 효율적인 취업정보 안내

III. 아라학우들이 학문탐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독서실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② 교양과목 선택 범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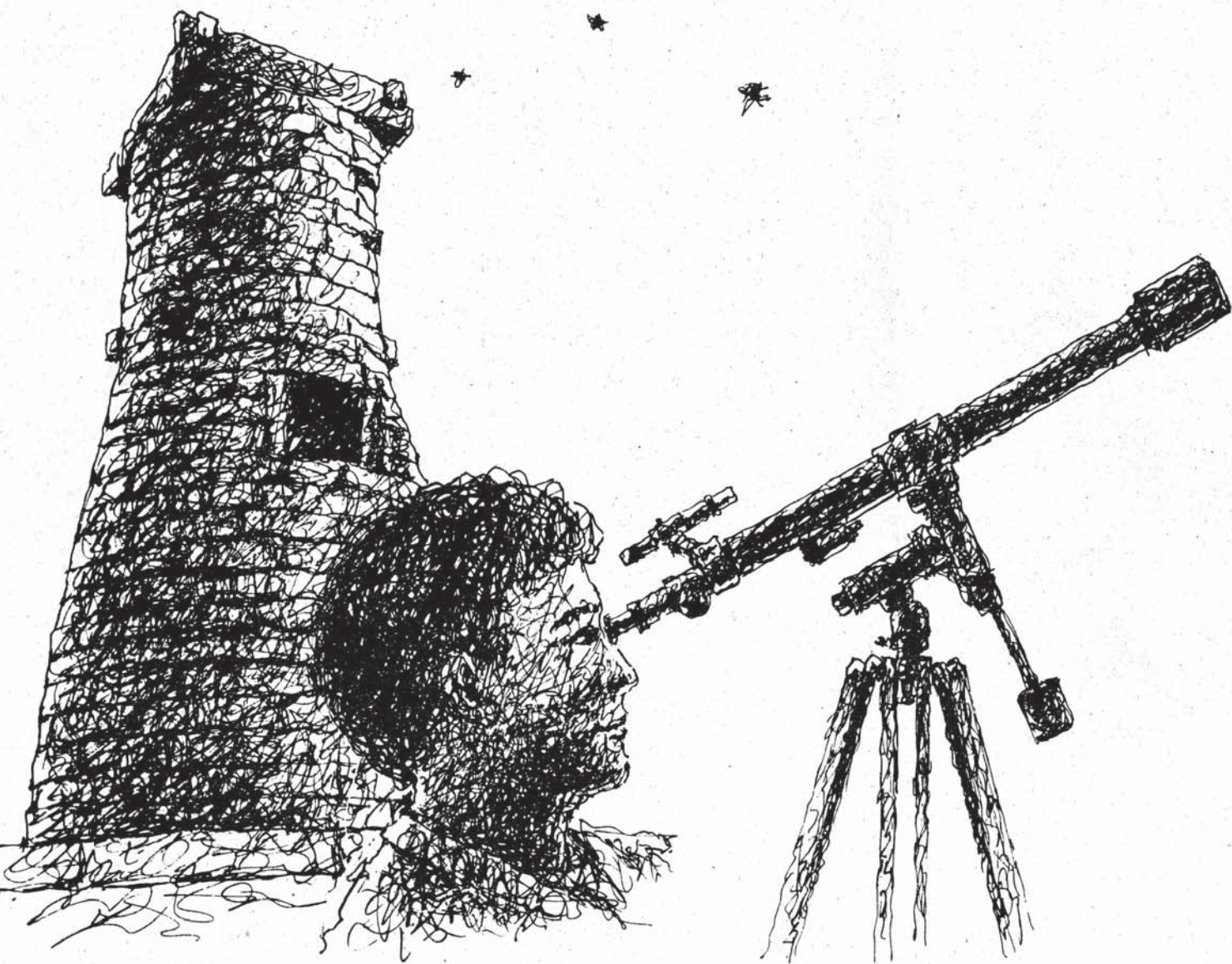
③ 동아리방들의 신축학생회관 이전에 따른 야간강좌의 피해의 문제점 해결

IV. 제주지역내 야간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각 야간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점들을 공유, 개선 노력
② 체육, 문화, 학술 교류 방안추진

아울러 저희는 수레가 될수는 있으나 그 수레가 나아가기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동반적 도움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젊음이 있습니다. ③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탐구하는 젊음이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관측대인 첨성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팔만대장경, 측우기, 금속활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던 선조들의 빛나는 과학, 문명의 업적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탐구정신의 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밝은미래를 열아가는 한국전력공사

◇ 학생휴게실 실태

재떨이 제대로 비치된
휴게실 하나 없어

학생들 탓하기 앞서 당국의 배려 선행돼야

“휴게실요? 너무 더러워요. 담배 냄새도 지독하구요.”

평소 휴게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현정(국문1)학우의 말이다.

굳이 이현정학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 새학생회관의 휴게실을 찾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뼘쯤은 눈살을 찌푸려본 경험 있을 것이다. 휴게실 입구부터 풍겨나오는 자욱한 담배연기, 여기저기 흩어진 휴지조각, 지저분한 탁자 등등. 아라인들의 안락한 휴식 장소로 자리잡아야 할 휴게실이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교에는 각 단과대학 휴게실과 도서관 휴게실 및 새 학생회관의 여학생휴게실과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각 단과대학 휴게실현황을 보면 농대와 사범대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의 단과대학에는 휴게실이 있다고는 하나 매점의 부속물처럼 되어 있어 단지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들르는 곳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예를 들어 법정대 휴게실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큰 탁자 3개와 딱딱한 나무의자가 양옆으로 있을 뿐이며, 이러한 시설마저도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상태여서 휴게실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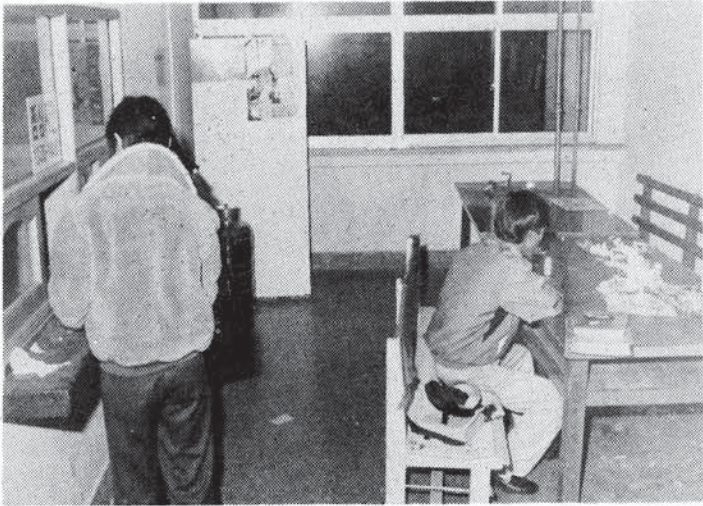
도서관 휴게실의 경우도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통풍은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은 휴게실에 환풍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인지 휴게실의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떨이 하나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탁자와 아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담배꽂이가 널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마디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기엔 망설여진다는 게 학생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새 학생회관에는 스낵코너를 사이에 두고 여학생휴게실과 휴게실이 있다. 그러나 새 학생회관이 문을 연지 석달이 지난 현재 휴게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휴게실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후 서너시간 휴게실에 가보면 앉을 만한 자리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어느 학우의 말처럼 오후의 휴게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현재 휴게실의 관리는 스낵코너 업자측에서 맡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 두차례에 걸쳐 청소를 하고



◇ 휴게실분위기조성을 위해 학교측의 시설물 보완과 학우들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사진은 법정대 휴게실)

있을 뿐이다. 업자측에서는 청소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셉터 서비스인 만큼 학생들이 공중의식을 갖고 먹다남은 쓰레기만큼은 스스로 치우고 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게실 이용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후생과측에서는 휴게실 이용에 대해 “휴게실이 더러워지는 문제는 이용자들이 내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깨끗이 사용한다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문웅 후생과장은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휴게실내부 단장과 환풍기의 설치, 간단한 읽을거리도 비치할 계획이며 야외에는 파고라 등을 설치,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게실 맞은편의 여학생휴게실도 스낵코너 업자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학생휴게실의 이용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총여학생회측에서는 여학생휴게실의 독자적 공간확보를 원하는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스낵코너와 여학생휴게실 사이의 통로차단, 간 이점대의 설치, 휴식박스의 활용방안 등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학생휴게실의 관리를 스낵코너 업자측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복지시설의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학교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마련에 앞서 우리들의 의식이 그에 상응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쾌적한 휴게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학교당국의 배려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양선영기자)

팩스 배정 잡음 많아

3개학과당 1대씩 설치 바람직

경리과(과장 김남식)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사무환경개선 방침에 따라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액중 3억2천여원을 들여 프린터 32대, 복사기 18대, 모사전송기(FAX) 43대를 구입, 11월 중으로 8개단과 및 주요 행정부서에 배정할 예정이다.

사무환경개선기기 설치계획에 의하면 복사기·프린터기는 본부행정실을 중심으로 배정되며 모사전송기는 교수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학과중심으로 배정된다.

모사전송기의 배정내용을 보면 인문대 2대, 법정대 1대, 경상대 2대, 사범대 2대, 농과대 3대, 해양대 3대, 자연대 4대, 공과대 5대이고 본부교무과·학생과·시설과·기획담당관실·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방사능이용연구소·아열대농업연구소·교육대학원·부속중학교·부속고등학교·제대신문사는 각각 1대씩이다.

또한 나머지 9대는 차후 심사를 거친 후 희망부서에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모사전송기배정에 대해 인문사회계열의 모교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연계열학과는 2개학과당 1대, 인문사회계열학과에는 4개학과당 1대를 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교수들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추정,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공평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리과 김형수계장은 “자연계열학과들이 인문사회계열학과와는 달리 실험실습문제 등을 다루면서 모사전송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진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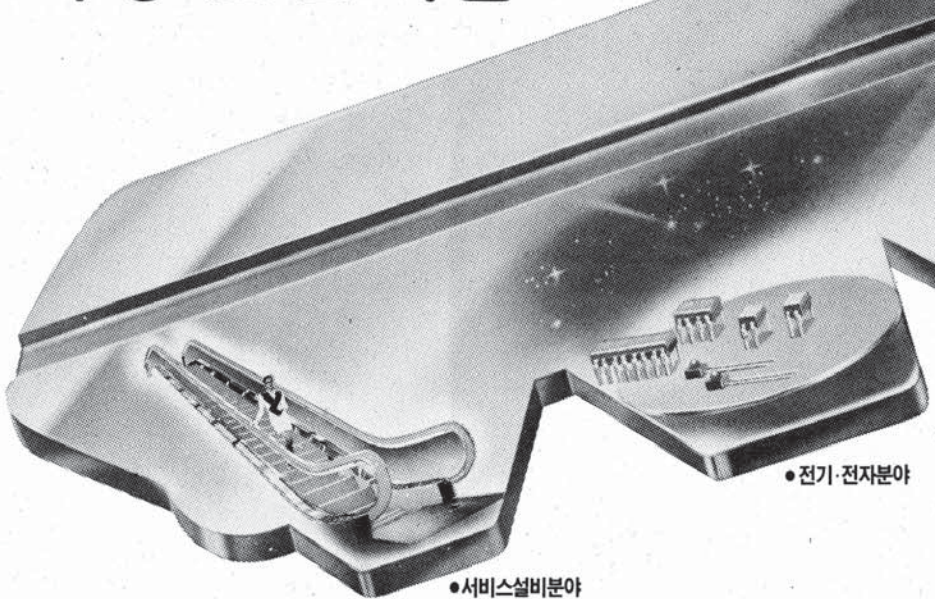
학내에서는 이번 사무환경개선책으로 각 부서 및 학과에 기자재품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현 우리대학 실정에서 모사전송기 등을 2개학과에 1대씩 배정해야할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지 의심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인문사회계대다수의 교수들은 대학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모사전송기만큼은 계열에 관계없이 3개학과에 1대씩 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면 이를 즉각 시정해 주기 바라고 있다. 한편 대학당국은 모사전송기 사용에 따른 공공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모사전송기 사용지침을 시급히 마련 제시해야 한다.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패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GS 金星産電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전기·전자분야

●서비스설비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산업자동화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분야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金星産電部門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ホニ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여의공원 트윈타워)
대표전화: (02) 787-1114

- 산업자동화분야
●로봇 ●PLC ●CNC ●인버터 ●물류자동화시스템
●공장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 서비스설비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지게차
●차량관리기기 ●자판기 ●전동공구 등
- 전기·전자분야
●초고압설비 ●배전반설비 ●고저압기기 ●변전설비
●제어계측기기 ●광반도체 등
- 환경·에너지분야
●상하수처리시스템 ●전기발전기
●자외선살균시스템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기
●축열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

인터뷰 박희수 민주동문회 초대회장

모교 발전 위한 운동 전개

총동창회와는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

지난 11월21일 개최된 민주동문회 창립대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박희수(법학과 81학번)동문을 만나 민주동문회 운영방침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민주동문회의 창립의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 변혁운동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직장 등 자기 생활에 매몰돼버린 상태에서 그 힘을 재결집할 매개체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새로운 힘을 마련하고자 민주동문회가 창립됐다. 이전까지의 틀에 박힌 활동에서 벗어나 모교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동을 펴고 아울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동문들이 제주대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함이다.

△앞으로 민주동문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과 구체적인 협의의 해박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감금수입개방반대투쟁과 양용찬원사추모사업회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후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총동창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민주동문회를 조직한다고 하니가 흔히들 총동창회와 대립적인 조직을 건설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총동창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본다. 민주동문회에서는 총동창회에서 아직 해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같이 일해나갈 것이다.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배운다는 자세에서 출발하러 한다는 사실을 여러 동문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민주동문회의 구성은?

=주로 80학번이후의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4백여명이다. 민주당 약국 3층에 사무실이 있으니, 동문들이나 후배 재학생들이나 자주 들려줬으면 한다.

△가입자격은?

=지금의 회원들이 주로 학생



활동을 하던 동문들로 구성돼 편향적이지 않는다는 시작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조직을 구성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동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먼저 가까이 있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 수 있는 대중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나도 잘 못하고 있지만 항상 겸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 학교 사랑으로 넘치는 모습을 간직했으면 한다. (續)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개최

모교발전과 사회민주화에 기여다짐

우리대학교 민주동문회(창립준비위원장 안병태 축산 79학번)에서는 지난 11월21일 오전10시 백두관(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사회 민주화와 모교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4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 창립총회는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회칙심의 및 확정 △회장·운영위원·감사·사무국장 추천 및 위촉순으로 진행됐고, 2부 창립대회는 △대회사(박희수 회장) △축사(김영훈 제주도의회의원 국문 65학번) △연



◇민주동문회 창립대회가 지난 11월21일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비상총운영위’ 개최

감금수입 저지투쟁논의

감금수입개방 반대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비상총운영위원회가 총학생회(회장 오영훈 경영4)주최로 11월24일 오후4시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총운영위에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기존발굴 및 △감금수입반대투쟁에 대한 기초발표에 이어 학우들의 투쟁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고침】 지난 11월16일자(490호)4면에 실린 강태국부교수의 ‘견고하고 싶은 책’내용중 ‘주인공’을 ‘예수’로 ‘상’을 ‘당’으로 ‘빈곤’을 ‘시대’로 ‘빈곤’을 ‘시대’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25일 총학 신입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대의원회선거 파행 운영 회칙어기며 학우들 기만

문민정부의 탄생으로(몇개월간 진행된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기존의 군사정권과 본질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유난히도 침체된 학생운동 분위기와 더불어 며칠 전에 있었던 학내선거에서조차 법정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학생회가 단독후보하는 모습속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클 것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속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천·반투표'라는 형식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으며 나름대로 노력하는, 좀더 발전적인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나타난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루어지는 대의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의 파행적인 진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의원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심의·결정기구이다. 93년 3월25일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에 보면 대의원회의 의장·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의원총회는 각 학과 1·2·3학년대표 전원으로 구성된다) 즉, 의장·부의장의 자격조건이 1·2·3학년 학년대표에게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칙이라는 건 집 형식이 아니라 8천여가 공동으로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회선거가 이처럼 회칙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대의원회 부의장에 당선된 학우의 경우 학년대표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선된 상태이고, 자격요건을 채우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차기 학년대표에 출마(물론 당선은 전제)하여 결국 내년가서는 자진 사퇴하며 부의장 당선을 합리화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은 크다. 그리고 과연 이들의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다"는 의지에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작년 대의원회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에 의한 당선이었다. (작년은 회칙이 변경되기 전이었으므로 자격요건이 각학과 정·부학생회장에게 제한)

이런 방법에 의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점 또한 심각하리라 생각한다. 즉, 자진사퇴했을 경우 다시 재선거해야 한다는 수고와 사퇴하고 재선거 하기까지의 공백 기간동안 과학생회 사업을 얼마만큼 충실히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학우들을 철저히 대외화시켰다는 점과 더불어 학우들에 대한 기만이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다"라는 말이 단지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부터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그랬을때 비로소 대의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재정립 될 것이다.

끝으로, 대의원회는 8천여라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미경 해양3)

독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정을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원고분량: 3~4매)

어떻게 된 겁니까? 백두관 앞 게시판 이전문제

“총학 요구시 고려해 보겠다” 여론 무시한 구태의연 행정에 아연

본지 11월16일자(490호) ‘독자의 소리’를 통해 기계공학과 학우가 지적했던 학생회관 앞 게시판 활용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시설과에 따르면 “게시판은 총학생회의 요구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 설치됐기 때문에 총학생회에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게시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후후 학우들의 여론 수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하여 게시판 활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외국어교육관 앞에 주차장이 마련될 것임으로 그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도 게시판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학우들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계공학과 학우가 지적했던 문제는 총학생회측에서 여론수

렴후(그게 언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지않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이 문제는 당초 학우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했다면 이와같은 지적인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총학 인복위에서 여론수렴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여론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본지에서 두 번이나 지적했고, 10여일전부터 총학생회 입후보자측에서 선거운동용 천막을 게시판 바로 앞에 설치해 놓고 있음이 그걸 말해준다. 차기총학생회장 후보자측에서 게시판을 가로막고 있는 판에 무슨 여론수렴을 더 해본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시설과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눈앞에 뻔히 잘못된 일을 두고 총학의 요구가 있을 때 고려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제대신문을 통해 개진되는 여론은 무시해도 되고, 총학에서 요구해야만 고려해볼만한 의견인지 묻고 싶다.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제발 탈피하기 바란다.

(정용복기자)

다. 그들은 왜곡된 형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물의 허상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그 허상뒤에 있는 진실을 투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고독하게 자기 '직업'안에 갇혀 허둥대며 지내고 있다. 생뚱썰매라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란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관계인 것이며 관계 맺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왕자는 장미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장미에게로 돌아가려한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 형체없이 사라진다. 이동화 속에 나타나는 사막, 물, 뱀, 죽음—그것들은 지극히 상징적이다. '사막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다. 우리도 황량한 사막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저마나의 우물을 찾아 떠돌고 있으므로.

고태홍 (영어교육과 교수)

無論有說 내 조상은 왜!



민창식

나는 물 좋고 공기 좋고 동쪽의 대한민국에서는 천혜의 관광지로 소문난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대학교의 정문 뒤쪽에 오늘도 그렇게 서있는 나무들 중의 한 나무이다. 나는 이쯤도 있을 수 없는 하찮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렇게 새 가을날을 맞으며, 저 멀리 아래쪽에 보이는 제주시와 그리고 그 밑에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제주 앞바다를 응시하며 앞으로 맞을 밝고 보람찬 미래에 비하면 과거는 한낱 과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명심(약소하지만, 이게 내 좌우명이다)하면서 또 다른 새 하루를 맞으려 하고 있다.

연세이 지만 아침 이 시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그 이유는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 오르는 듯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지어 풀어왔던 '한', 그 한이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듯 싶어서 고맙다 못해서 언제나 이렇게 아침만 일 수는 없을을 하고 생각을 시작한 것이 꽤 오래 되었다고 실토해도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을 정도로 나는 생각이 깊은 사려가 있는 나무이다.

그러나 이렇게 밝고 힘찬 아침을 맞이하고 나면 나의 현실이 현실로서 언제나 같이 동심 또 다시 떠올라서는 나를 휘휘 휘감아버리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한 나무 평생에 해왔던 똑같은 생각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고 내 처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변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이에 따르는 당위성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나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나의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매일같이 끝내는 도달하고 마는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가을 탓인가 아니며 자꾸 먹는 나이에 나무의 망령 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 나무들한테 다가오나. 그러나 이런 생각, 즉 도달하지 않은 결론에 대한 어떠한 완

명이 없는 되는게 없다니까!) 결국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결론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바로 조상때문이라는 것이지, 즉 우리 나무들이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조상탓이라는 게 나의 사려 깊은 결론이다. 왜 우리 조상 나무들은 움직여 다닐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 지능이라고는 꼬리 흔들 줄밖에 모르는 저 하찮은 개만도 못한 개들은 놀라서 오줌 쌀 때를 제외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옮겨다니는데, 왜 우리 나무들은 그 하찮은 움직임을 하나 없이 한 평생을 마쳐야만 하는 것일까?

개들이 3차원의 혜택을 누리는 식으로 공평하게 우리 나무들도 3차원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지는 못하니까 대신에 시간의 차원에 따라 내 맘 내키는 시간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백~3백년전 쯤에 광목이 귀해서 요즈음같이 이렇게 함부로 써서를 나무한테 제멋대로들 붙들어 댈 수 없을 때면, 아니면 한 몇십년 뒤면 굳이 천에다 쓰는 수고와 시간이 아까워서 그 무언가 대전엑스포에서 맞보기로 보여준 레이저광선으로 모든 내용을(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면관게 때문에 줄일 필요도 없이 저 허공에 모조리 확쏘아 버리는 세상에는 내 동지는 단순한 기억 속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텐데.

그러게 되면 이 사려깊은 내가 이렇게 매일 하는 결론이 똑같은 '조상탓이야'라는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좀더 생산적인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옛날 우리 조상나무 씨가 우주에서 제일로 아름답다는 말에 혹해서 나무도 슬픈 내용의 "윤금이(씨)..."무엇이어서인가. 그렇지 어떻게 어제가 오늘과 같을 수 있으며 내일이 또 오늘과 같을 수 있으며 내일이 또 오늘과 같을 수 있었는가(이런 속도로 내 좌우명 삼적인 짐작도 내·신조에는 전혀 결맞지 않는 부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

다. 그들은 왜곡된 형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물의 허상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그 허상뒤에 있는 진실을 투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고독하게 자기 '직업'안에 갇혀 허둥대며 지내고 있다. 생뚱썰매라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란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관계인 것이며 관계 맺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왕자는 장미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장미에게로 돌아가려한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 형체없이 사라진다. 이동화 속에 나타나는 사막, 물, 뱀, 죽음—그것들은 지극히 상징적이다. '사막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다. 우리도 황량한 사막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저마나의 우물을 찾아 떠돌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계공학과 학우가 지적했던 문제는 총학생회측에서 여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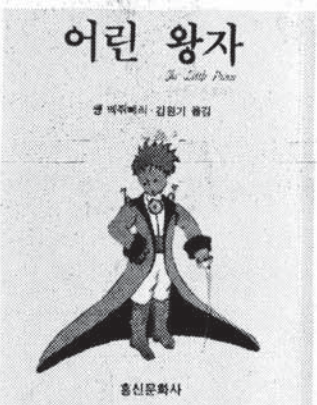
(해양토목공학과 전임강사)

권하고 싶은 책

생뚱썰매 저-어린왕자

어른들을 위해 써진 동화가 있다.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까지 결집한 장 수도 얼마 안되는 이 동화에는 진정한 삶에 대한 세계가 시작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인간의 삶이란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면 같은 일, 비슷한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이러한 삶속에서 생겨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힘을 갖추게 된다. 그것은 행동 하나 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의 유대, 우정의 필요성을 이처럼 강조한 작품도 드물지 않을가 한다. 한 존재를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는 귀중한 존재가 된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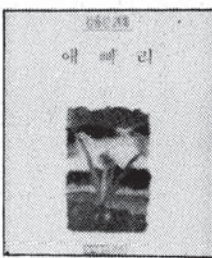


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또한 이 책은 강조한다.

아주 작은 별에서 혼자 살다 장미꽃과 다투고 여행을 떠난 어린

왕자는 여섯개의 이상한 소혹성들을 둘러보고 나서 지구로 온다. 그는 이 여러 별에서 혼자사는 '명령'이 좋아하는 왕, '자기자랑만 하는 허영심 많은 사나이', '부끄러운 일을 잊기위해 술을 마시는 주정뱅이', '별의 숫자만 계산하는 사업가', '목적없이 명령에 따라 가로들만 켜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변하지 않은 일만 조사하는 지리학자'들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독에서 벗어날 진정한 방식을 외면한채, 지배, 소유, 추상적 지식, 현실 도피, 혹은 타인에 의한 자기 확인, 그 모든 헛된 욕구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공허를 은폐하려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왕은 신하를, 허영심 많은 사람은 찬양자를, 지리학자는 탐험가를, 사업가는 소유의 대상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

새로 나온 책 강종완시집 『애버리』



강종완 (90년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문 5번째 시집 『애버리』가

도서출판 문단에서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제1부 산이 된 지금 △제2부 불같은 교백 △제3부 기억의 앞세 △제4부 연가 △제5부 외로운 추신 등 모두 5부로 구성돼 70여편의 작품이 실려있다.

강종완은 지난 90년 『시대문학』지에 『새벽편지』등으로 등단해 현재 『시대』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 『순바닥에 쓰는 편지』가 있다.

사진전시회 안내

△주제: '중국·중국사람들'
△ 때 : 11월25~26일
△장소: 학생회관 시청각실
△내용: 지은숙(사학3)학우가 지난 8월 중국연수시 촬영한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 30여점.

POSCO메세지 증강판



품질우선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절감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정보통신등 첨단산업으로
세계일류기업의 위상을 다지는 포항제철-
주요점: 품질우선으로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여 제철회사로서는 세계 최대 품질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포항제철은 품질우선과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신평가시대 준비하는
POSCO

半字不成

우리 옛말에 半字不成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반만 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로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무엇이나 되지 하다가 말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창 증강을 준비하는 지금, 힘찬 출발 못지않게 1년간의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마무리짓고 있습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한 획까지 정성껏 써 보십시오. 성실한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